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1월 17일(음력10월 6일) 수요일 (주간) 제500호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 유교문화원, 가평 법흥사 등
웰빙◎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여주교도소 재소자 대상 '붓다 아카데미' 그 절절한 참회 현장

"棺에 들어가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우공양 · 연등만들기 · 죽음체험 통해 희망 찾고 새삶 발원

11월 11일 오후 여주교도소.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성무)가 수용자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붓다 아카데미, 나를 찾아서'를 진행하고 있는 교도소 남사(男舍) 교육관을 찾았다. 막 군대를 전역한 듯한 까까머리 청년부터 희끗희끗한 노인까지, 부처님 앞에 모여든 50여 명의 수용자들은 여주 신륵사 보문 스님의 지도 하에 <부모은중경>을 사경하고 있었다.

수용자들의 사경하는 모습을 둘러보다 유독 김씨에게 눈길이 멈췄다. 재소복 사이에서 언뜻 언뜻 비치는 문신 탓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일자일배(一字一拜)에서 좀처럼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렇게 숨을 죽이고 지켜본지 1시간. 곧기만 하던 그의 몸이 흔들렸다. 가쁜 숨 사이로 땀방울이 사경지 위로 떨어졌고, 정성스레 쓴 글자들이 얼룩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살인을 했지요. 우발적인 사고라 변명하고 싶지만, 결국 내 마음의 엇나감으로 남의 생명을 해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참회해야 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부처님께 기도를 하며 저로 인해 해를 입은 영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극락왕생을 비는 것뿐입니다."

쉬는 시간 그가 건넨 말 속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다.

여주교도소 남사 교육관에서 수용자 50여명이 일자일배를 통해 <부모은중경>을 사경하고 있는 모습.

여주교도소(소장 신상철)에는 초범 1,700여명이 수용돼 있다. 절도, 폭행, 살인 등 그 죄목들은 각각이지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같았다.

여주교도소 불교분과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교도소라는 곳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재소자들과 정신적 교감을 통한 교화교육을 담당하고 싶었다.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라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는 법회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교도소 직원신행모임 불심회(회장 함대식)와 함께 '붓다 아카데미'를 기획했다.

붓다 아카데미는 11월 8~20일 2주간 발우공양과 연등 만들기, 명상 및 요가, 삼보일배, 사경, 유언장 작성하기, 죽음체험 등 불교 수행프로그램들로 매일 다르게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지난 8월 시범 운행된 제1기 붓다 아카데미를 통해 드러났다. 아카데미 실시 이후 수용자들은 발우공양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삼보일배를 통해 참회의 시간을, 명상과 요가를 통해 심신의 정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 동안의 교육은 전문강사가 와서 하는 강의 일변도라 가슴에 크게 와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찬불가도 부르고 사경도 하고 명상 등을 하며, 내 안의 화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점차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신OO · 징역 5년)

특히 지난 11월 5~6일 여사(女舍)에서 진행된 유언장 작성과 죽음체험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용자들에게 지난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죽음체험을 위해 수의를 입고 해탈문을 지나는 순간 '정말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성판에 누워 손발이 묶인 채 관속에 들어간 순간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여사에서 만난 붓다 아카데미 참가자 류씨(징역 1년 6개월)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또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막상 죽는다 생각하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을 나와서는 못난 어미로 인해 방황하고 있는 딸아이가 생각났다고 말한다.

"복역을 마친 후 남은 생을 딸아이 같이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제 장기를 필요한 이들에게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볼 위로 흐르는 눈물 사이로 씽긋 웃어보였다. '희망'. 붓다 아카데미는 단순한 정신교육이 아닌 참회를 통한 희망을 수용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으로 여사를 빠져나오는데 몇몇의 수용자들이 며칠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기자에게 건넸다.

"저승 가는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안기고 떠나게 되다니.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아. 죄 많은 엄마를 용서하고 항상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좋은 업을 짓고 행복하게 살으렴…. (유OO)"

"참회합니다. 온갖 죄를 짓고 남을 해친 점 부처님 앞에 참회하며, 다시 태어나면 봉사하는 삶으로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박OO)

글 · 사진 / 여주=김은경 기자

'간화선 수행지침서' 내년 2월 간행

편찬위원장 혜국 스님…체계적 수행방법 제시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해온 조계종 '간화선 수행지침서' 발간작업이 올 연말 마무리된다.

'간화선 지침서 편찬위원회'는 11월 3~5일 충주 석종사에서 열린 확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제방 선원 중진수좌, 선원장, 학계 등의 자문을 얻어 추진 중인 수행지침서 편집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편찬위원장은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 · 사진)이 맡고 있다. 이 지침서는 내년 2월 간행 예정이다.

조계종이 수행체계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은 2001년 말 수행종풍 진작을 핵심 종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면서부터. 조계종은 그동안 대승불교의 최상승 수행법이라는 간화선을 대 사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8일 수행지침서 간행과 제 수행법 연구 등을 중심으로 '조계종 수행체계 연구위원회'가 발족했다. 편찬위원회에는 위원장 혜국 스님을 비롯해 고우 무여 인각 의정 강설 설우 스님 등 선원장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간화선 치침서 편찬위는 모두 6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편찬체제를 △기초단계 △실참 단계 △깨달음 이후 단계로 나누고 △간화선의 기초, 교육과 수행 △화두의 결택 △화두의 참구 △삼매 △점검과 인가 △깨달음 이후 등으로 각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자세한 공부법을 제시해 간화선 수행의 이론 · 실참서가 될 전망이다.

편찬위 관계자는 "이번 수행지침서가 선대 어록과 현재 최고 수행자들의 의견을 집대성해 종단을 대표하는 수행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간화선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간화선 대중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종무실 축소 반대" 종교지도자협 9일 성명

정부의 문화관광부 종무실 축소 결정과 관련,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법장 · 이하 종지협)는 11월 9일 이번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지협은 성명서에서 "종무실 축소 결정은 다종교 국가에서 종교가 가지는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탓"이라면서 "종무실은 약화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지협은 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 종무실의 규모 뿐만 아니라 종교 담당관들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종무실 축소결정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반가워요, 현대불교!

산중에서 공부에 전념하는 학인들도 매주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불교 소식과 정보를 얻고 있다. 사진은 11월 11일 방학을 맞은 대구 동화사 강원(강주 해월) 대교과 학인들이 '현대불교' 최근호를 보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동화사=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지령 500호' 특집 안내
부처님은 웰빙을 설했다 5면
간화선과 힌두명상 무엇이 다른가 18~19면

그림 · 조태호

정천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無住堂 淸華 大宗師 涅槃 一週忌 追慕齋 案內

무주당 청화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스님 및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일 시 : 불기 2548년 11월 21일 (음력 10월 10일) 일요일
● 시 간 : 오전 11시
● 장 소 : 성륜사 법성당
● 주 소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산 1번지
● 연락처 : 종무소 061)363-0081

불기 2548년 11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설령산 성륜사 문도일동 합장